

# 김해 양계장을 찾아서

## 김해로 가는 차창에서

김해양계장의 박희관씨를 찾아 기자가 서울을 출발한 것은 12월 초순, 영하 7도의 기온속에서 가뜩이나 추운 날씨는 양계업계의 극심한 불경기로 인하여 더욱 기자의 어깨를 움츠러들게 하였다.

이러한 날씨속에서 기자가 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은 이 불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며 흑자경영을 하여 전국의 양계인에게 따뜻한 바람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지혜롭고 용기있는 양계인을 찾아나서는 일이 고작이었다. 부산에 도착하여 한국가금협회 부산·경남지부장이신 이병달교수님과 같이 김해로 가는 차창에서 미리 박희관씨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려보았다.

「어떤 분이신가요? 박희관씨라는 분이?」 「아 그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양계인이 다넘어져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이교수님의 얘기에 기자는 박희관씨를 찾아 나서기를 잘 하였다고 생각하였다.

## 닭의 냄새도 못 맡던 사람

미리 연락이 되어 있었던 관계로 박희관씨가 반갑게 맞아 주었다.

『상당히 규모가 크군요—대략 얼마나 됩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지가 11,000평에 건평이 약 800평정도이지요』라고 말문을 꺼내는 박씨의 현재 규모는 산



〈박희관씨(左)와 함께〉

탄계만 20,000수, 현재 육성중인 육성계가 9,000수, 사육중인 닭의 계통은 핏사가 60%, 세이버가 15%, 하이라인이 약 25%정도라고 하며 매일 생산되는 달걀이 약 13,000개 정도라고 한다.

『현재의 규모에 이르기까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또 양계업을 시작하신 동기는?』

박씨가 양계를 시작한 것은 1960년도라고 한다. 또 씨가 양계를 시작하기 전에는 양계는 커녕 도대체 닭이나 오리등은 냄새도 맡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한 씨가 양계를 시작한 것은 나이 40세때(1960년도) 집에서 짓는 몇마지기 농사와 조그마한 구멍가게로는 도저히 가게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였다.

## 500수 시작에 육추율 100%

맨처음 박씨가 시작한 수수는 500수였다. 병아리 500수에 덤으로 5마리를 더 얻어와서 시작한 양계업이 8주가 지나고 나니 505수중 죽은 병아리는 불과 5수밖에 되지 않아 육추율은 100%를 기록했다. 그때 씨는 역시 「덤은 덤으로 끝나는 것」임을 깨닫고 그 후로는 부화장에서 일체의 덤은 받아오지 않고 대신 튼튼한 병아리로 받아 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맨 처음 병아리 500수를 들여 온 박씨는 앞으

로 이 500수의 병아리가 씨의 전 생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밤낮없이 병아리와 같이 지냈다. 500수의 병아리를 한마리 한마리를 전부 알 수 있을 정도로 친숙해졌다. 당시 가지고 있던 땅 800평에 약 60평의 계사를 짓고 아예 잠자리마저 계사에 마련하고 밤낮을 병아리와 같이 지낸 것이다.

당시 박씨 일가의 생계는 구멍가게에서 그런대로 유지가 되었으므로 500수에서 생기는 수익은 그대로 재투자할 수 있었다. 첫 해에 생긴 총 수익이 당시의 화폐로 약 40만원정도였다. 씨는 이 40만원을 고스란히 재투자했다. 전년도의 닭 500수에 다시 500수를 늘였다. 계사가 1동 더 늘어나고 닭도 1,000수로 늘어나자 몸은 몹시도 바빠졌다. 다행히 그 심하다는 양계질병도 오지 않았고 이제는 1,000수 규모면 김해군내에서는 꽤 큰 양계장이라고 이름이 날 정도였으니(당시 김해의 제일 큰규모의 양계장이 1,500수) 계란장수들도 서로 찾아와서 계란을 달라고 조를 지경이었다. — 당시의 계란가격을 적어놓은 장부를 뒤적여 보았더니 계란값은 35~50만원정도였다. —

닭의 수수가 늘었으나 씨의 양계장 기거는 여전히하였다. 낮으로는 병아리와 닭들을 보살피며 밤으로는 각 처에서 구해온 양계에 관한 잡지나 서적을 읽었다. 서적류들은 주로 일본의 서적들이었으며, 국내에서 발행된 책들도 씨가 읽지 않은 책들은 거의 없을 정도였다 — 씨의 양계서적에 관한 수집열은 대단하였다. 정확하게 씨가 양계를 시작한 1960년부터 일본의 양계세계, 계의 연구동과 국내에서 발행되는 거의 대부분의 서적들이 10년분이 꼭 차 있었다. —

## 무리하지 않는 경영

박씨가 그 다음해인 1961년말에 적어 놓은 장부를 보면 총 수수 1,000수에 1961년도에 생긴 수익이 약 60만원 정도였다. 이제 꽤 자산이 늘었으니 땅이나 규모를 키우라는 얘기들도 주위에서 있었지만 씨는 무리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씨가 양계를 시작한지 3년째인 1962년도에

는 약간의 구계를 갱신하고 다시 병아리 1,000수를 들여와서 닭의 총숫자는 약 1,500~1,700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다행히 양계를 시작한지 3년이 지나도록 아직 병이라는 것은 몰랐고 각 양계서적에서 질병의 무서움을 너무 크게 얘기했으므로 씨는 아예 양계장에는 철망을 치고 외부인의 출입이나 접근은 질책을 할 정도로 막았다. 심지어는 씨의 양계장에서는 무슨 귀한 닭들을 기르는 줄 알고 주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정도였었다.

3년이 지나도록 씨의 양계장 기거는 여전히였다. 닭 1,500수의 1년 산란수나 닭 1마리 1마리의 성질까지 거의 알 정도가 되었으니 씨가 저녁에 잠을 잘때 몇 번째 칸에 있는 어느 녀석이 꿈속에서 나타나 「어디가 아프니 약을 주시오.」하는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날은 약을 사다 먹일 정도였었다 한다. 주위에서는 닭에게 미친사람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양친들은 『부모에게 그 정도 효도를 하면 효자비를 열개는 세웠을 거라』는 빈축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거의 닭에게 미치다 시피한 씨도 양계 4년을 맞이 하여서는 약간의 타격을 받았다. 1963년의 난가하락이 큰 원인이었다. 1963년의 난가하락은 3년동안을 별 타격없이 발전을 하고 있던 씨에게 상당히 여려가지를 가르쳐 줬다. 씨는 양계서적에서 볼 수 있었던 경영에 관하여 생각하여 보았다. 만일 이대로 확장을 해 나간다면 과연 언제 불경기가 또 닥칠 것인가 — 과연 몇 수 정도가 손익이 교차되는 점일까, 양계에서 불경기가 닥친다면 유축농가 수익증대를 부르짖는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 줄 것인가 등등 많은 문제들이 씨의 머리속에서 맴 돌았다. 그러나 씨의 결론은 하나로 굳어졌다. 결국 스스로가 남에게 기대지 말고 더 이상 확장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항상 총자산액의 30%정도가 유통자본으로 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여유있는 경영을 한다면 즉 불경기가 닥쳐서 계란이 팔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6개월간 사료를 사먹일 수 있을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으며, 너무 무리한 닭의 수수를 보유하지만 않는다면 항상 어떠한 불경기라도 견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었다.

씨는 당분간 4,000수 이상의 닭을 가지지 않기로 결론을 지었다. 매년 500수 정도만 늘려 나가되 그 최대한의 수수를 4,000수 이상으로는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한 닭의 도태를 너무 빨리 시킬게 아니라. 환우를 하고 나면 그경제적인 수명을 더 늘려 1년을 더 달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닭을 보존하여 보는 데에 전심을 기울였다.

## 앞으로는 대군양계가 아니면...

이렇게 하여 씨가 1968년에 이르기까지 보유한 닭의 수는 매년 꼭 4,000수 정도에서 그쳤다. 그러나 1968년에 씨가 자신의 자산을 총 평가해본 결과 약 1,600만원이 되고 있었다. 이제는 닭의 수를 약간 더 늘여도 무리는 가지 않을 것 같았으며 마침 도(道)에서 기체 사업으로 현재의 대지 불하가 있었다.

씨는 현재의 주소지로 양계장을 옮기고 양계의 수수도 대폭 늘리기로 하였다. 이제는 씨가 맨 처음 하던 식의 방법으로는 수지맞는 양계를 해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첫째 사료비는 포로 사다 먹이다 보니 경영비중 너무 사료비가 많이 차지하게 되고 사료의 질이나 주문도 신속하게 할 수가 없었으며 판매에서도 대량이 아니면 항상 손해보는 양계를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씨는 사료공장과의 계약을 하여 매월 씨가 구입하는 사료 90톤에 대하여 기별 혹은 계절별로 사료배합표를 작성하여 공장에서 주문배합하며 계산은 원료비에 5%의 배합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료포장비의 절감을 위하여 4톤짜리 사료통(Bulk System) 두개를 씨의 양계장에 설치하고 공장에서 마대 혹은 큰 포대에다 사료를 운반하여 이 통에 갖다 운반하여 주면 이 통에서는 수시로 급이차량에다 다시 소분하여 급이를 하고 있었다.

이 8톤짜리 사료통을 시설하는데 든 경비가 약 30만원이였었는데 약 1년이 경과하니까 사료포장지를 절감할 비용으로 충당이 되었다.

이 사료통의 내구년한을 20년으로 본다면 19

년간의 사료 포장지 값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사료공장도 사료운반차의 수송고를 개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얘기하고 있었다.

이 사료통의 설치는 월 사료소요량이 50톤이상되는 양계장이라면 당장이라도 설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이익이 나는지 모른다고 씨는 거듭 권장하였다. 왜냐하면 사료공장에서 20kg짜리 사료포장지 한장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평균 20원인데 양계인이 사료를 쓴 후 다시 팔려고 하면 아무래도 10~15원 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벌써 5~10원은 20kg당 손해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주위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은 얼마든지 많다.

또 사료통의 설치로 인건비가 또한 절약이 된다. 사료포를 뜯고 운반하는 인력이 절약되기 때문에 현재 씨의 양계장에서는 1인이 관리하는 닭의 수수는 평균 4,500수이며 그 인력은 아침 4시30분 기상에서 오후 5시면 모든 일은 끝낼 정도이니 그렇게 무리한 작업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씨의 경영방식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사양하고 있는 닭의 계분판매비 만으로도 항상 인건비는 충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달걀은 사료비와 수익을 주어야 하며 병아리값과 산란전까지의 경비는 폐계처분비와 계란판매대의 일부에서 지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와 관리비는 계분에서 나오지 않으면 도저히 양계인의 수지를 맞출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력의 사용은 항상 계분의 판매비가 고용을 더 할 것인지 아닌지의 바로미터가 되는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흥미있는 얘기였다.

또한 『판매 역시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라고 씨는 말했다. 왜냐하면 계란상인들은 단결이 잘 되기 때문에 4,000수정도를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한사람에게 계란 전부를 주는 일은 없었다 한다. 항상 몇 사람에게 분배하여 주므로 상인의 횡포를 막았고 유리한 판매를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물량이 많아져서 납품(제과공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

## 양계 불경기를 이겨 내는 비결

『양계 불경기를 이겨내는 비결은?』이라고 물었을 때 씨는 겸손하게 얘기하였다. 별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얘기 할 수 있겠지요

첫째, 양계는 꾸준히 계속하면 절대로 손해 보는 사업이 아닙니다. 만일 금년에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복구합니다. 봄을 타고 양계가 괜찮다하면 시작하는 사람이 돈버는 것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단 꾸준히 계속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경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무리한 경영을 하지 말자는 것은 조금 돈을 벌었다고 해서 크게 확장을 하거나 사료비나 병아리를 외상으로 해가면서 까지 계사를 증축하는 일 등은 없어야 합니다. 항상 자기 자본의 30~40%정도는 유동자본으로 쓸 수 있어야 하며 만일 자본이 없으면 신용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용은 1~2년 사이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니 평소부터 무리하지 않게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대군업자(10,000수 이상)가 아니면 반드시 공동판매나 공동구입을 할 수 있도록 협동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결된 생산인의 힘은 굉장히 큼니다. 항상 중간상인이 유통질서를 깨트리는데 생산자만 단결하면 중간상인의 농간은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습니다.

넷째, 우리의 주변에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규명하여야 합니다. 사료포, 병아리의 덤에 의한 약추, 계분의 처리 등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한계는 있지만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섯째, 요즈음 같이 병아리의 폐사율이 마력병, 백혈병 등에 의하여 높아질 때에는 꼭 육추를 하는 것 보다 1년을 산란한 구계를 완전 강제 환우를 시켜서 성적이 나쁜 닭은 도태시키고 성적이 좋은 것만 경제수명을 1년 더 연장시키면 육추와 비교해서 훨씬 경제적입니다. 병아리 1마리 육성비가 약 650~700원인데 비하여 육추율은 요즈음 약 75%밖에 나오지 않고 초산란은 소란이지만 만일 갱신시킨다면 도태를 약 30%

정도 시키게 되고 강제 환우기간에 먹는 사료비가 70~100원 밖에 먹지 않으며 강제 환우 이후에는 바로 특, 대란을 낳을 수 있으므로 훨씬 유리합니다.

여섯째, 꼭 기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록을 항상 하고 있다면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고, 판매비도 비교할 수 있어 도태 갱신시킬때 좋은 자료가 됩니다. 기록은 생산, 판매에 관한 것을 꼭 하는게 좋습니다.

일곱째, 인력은 항상 1~2명을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아픈 종업원이 있거나 급한 불일이 있을때 항상 닭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고가 있게 마련입니다.

여덟째, 무엇보다 닭과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육추율이 좋지 않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상합니다. 주인이 닭과 같이 자면 육추율은 꼭 85% 이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상이 박씨의 비결(?)의 전부였다. 너무나 평범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것이 이 비결의 본질인 모양이다.

『정부의 양계정책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묻는 기자에게

『양계 정책같은 것이 있습니까? 양계인은 자신이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양계인을 위해 정부가 해 준것이 뭐가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하여 기자는 할말이 없었다.

『가금협회를 키워야 됩니다. 참된 양계인의 단체인 가금협회에서 닭의 수수료 조사할 수 있어야 되고 더 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생산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말입니다.』 씨는 힘을 주어 말했다.

## 돌아오는 길에

벌써 날이 어두워 있었다. 『대강 얼마나 될까요? 현재 자산이』

『약 3천만원?』하고 박씨는 수줍게 웃었다.

김해평야의 찬 바람이 기자의 얼굴을 때리고 지나 갔지만 박씨의 알뜰한 양계일지를 들쳐본 후의 기자는 별로 추운줄을 몰랐다.

주소: 경남 김해읍 구산동 708<김해양계장>